축복된 삶의 침노

(창27:1~29)

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17.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축복된 삶 침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축복된 삶 침노'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늙어서 분별력이 없어진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에 반해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하는데, 이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하는 행위를 축복된 삶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서 '축복된 삶의 침노'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얼른 기억이 나는 대로 침노는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침략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법으로 쳐들어오는 것이고, 침략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의 나

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는 구절이 있고, 또 누가복음 16:14-16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을 침노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침략 행위에 포인트를 맞춰서 아주 열정적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침노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뜻이 어디 있겠는가?
어감 자체가 안 좋습니다.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침노인데 천국을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왜 이런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면 왜 침략을 합니까?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의 도자기공들을 끌고 가서 도자기를 발전시켜서 일본의 도자기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문물을 탈취해간 것이에요.
이처럼 침노하는 이유는, 침노하려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을 때에 침노합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 차 있는 영역을 침노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쓰레기로 차있고, 배설물로 차있고, 무용지물인 영역 속으로 침노해 들어가는 자는 세상에 없어요.
모든 전쟁의 침략은 왜 일어나느냐?
내게 유익이 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곳을 정복하면 내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왜 천국을 침노한다고 하셨을까요?
내가 진짜로 행복해지고 내가 진짜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천국에 다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침노 행위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필요하고 내게 좋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침노한다는 표현을 하신 것이고, 침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천국에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 이 땅보다 하늘을 더 좋아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있는 보기에 좋은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당신이 계시고 영원 전부터 살고 계시는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을 향하여 마음을 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시기 위해서 이 땅을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이 천국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침노해서 천국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요한 때부터입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요한이 갖는 의미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던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전한 모세라든지 다윗, 요셉,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알았겠지요.
이들의 존재의미가 무엇입니까?
선민들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요한의 때까지 그것이 안 되다가 예수님 때에 천국이 침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 다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천국에 있는 좋은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 때까지'
선민들의 역사 속에서도 요한 때까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맛있는 것을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는 이삭의 계획을 알아채고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아버지를 속이기로 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팔에 염소 털을 붙이고 에서라고 속여서 축복권을 탈취하는 이 사건으로부터 요한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올바른 신앙의 모범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선민들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구약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과연 천국을 침노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대할 때마다 참 많은 의문점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문점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당신의 선택의 내용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나중에 나온 자가 영적인 의미에서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는 에서가 먼저 나온 장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주신 언약의 자손을 계승할 장자는 두 번째로 나오는 야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셨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 축복의 기도를 받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을 탈취하려고 한다든지 자기 자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든지 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많아질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장에서 99세가 되어 내년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다 거절하시고 염두에 두셨던 이삭을 아브라함 집안의 언약자손의 승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으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의 계승자는 야곱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시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단,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되었을 것을 거짓말과 사기를 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처음에 리브가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야곱이 머뭇거렸어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어서 아버지가 만져보면 금방 탈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리브가가 저주를 받게 되면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자기 말만 듣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중동 땅에 있는 염소의 털은 사람처럼 부드러웠다고 하는데 그걸 감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데, 야곱도 일단 시동이 걸리니까 아버지 앞에서 몇 번이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입니다. 몇 번이고 확인 차 물어보는데 그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넙죽넙죽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생겨요.
이삭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어도 과연 야곱에게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만큼은 예외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추구한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인데, 이렇게 도둑질을 해서라도 복을 얻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분명히 이삭은 에서로 알고 축복기도를 했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에서의 냄새를 맡으면서 에서로 알고 축복기도를 했어요. 에서라는 이름과 복이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사람은 야곱이라고 했을 때 이 서류상의 명의자와 실제 인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에도 복이 유효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일을 볼 때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받든지 본인의 도장을 가지고 가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대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가 받을 복을 에서가 없기 때문에 대신 받아서 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서는 준적이 없는데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도 이게 가능한가요? 이름 따로 존재 따로 일까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하늘에 계신 분의 존재와 이름이 따로 놀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이름과 존재가 따로 놀 수 있고, 연결고리가 없다면 아브람의 이름을 구태여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취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갈 축복을 쟁취하신 것

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신 이유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집의 장자권과 다르게 아브라함의 집의 장자권의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아브라함 집의 장자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축복에 대한 오해의 역사가 요한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권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의 내용은 천국침노입니다. 외면특권과 대면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천국이라는 영역에 있다고 믿는 것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가는 장자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가 좋아할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배설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장자권의 참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장자권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구체적으로 해준 축복의 내용을 보면,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땅의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늘의 이슬’은 비와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 비를 내려 주셔서 땅이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해주시고, 포도를 많이 수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을 지라도 마음이 물질에 취하거나 빼앗기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물질에 취하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사치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안 사도 될 것들을 돈만 있으면 자꾸 사려고 하면서 돈 있는 티를 내려고 하고 돈에 먹혀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천국 침노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와 연관을 시키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은, 만약 제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 자식이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선민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돈에 취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의 말씀은 "만민이 너를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두 가지의 의미는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는 기도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무리 주어질지라도 맘몬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영적인 됨됨이에 대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의 근원은 그런 인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그 복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리라는 공생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질적 기도는 아무리 많은 물질의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된 다음에는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 장자권의 내용을 오해해서 이 세상에서의 복을 얻는 것인 줄로만 알고,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을 침노하는 길이 장자권이라고 생각해서 장자권을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리브가와 야곱의 노력이 선민들에게서 계속해서 이어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끊어져나갑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의미에서의 장자권이 다 부여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침노이고 그게 바로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의 집안에서 내려가는 장자권의 내용이 바로 천국 침노입니다.

천국 침노는? 천국이라는 영역에 좋은 것이 다 있는 줄로 믿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푼돈을 받고 미국에 팔아버린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에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좋은 것이 다 있는데, 야곱과 리브가처럼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있고 복된 삶이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믿고서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푼돈에 알래스카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아래에는 천연가스며 석유며 모든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고, 그것이 나중에 군사기지로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알고 있는 자들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자들로서 천국을 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보이세요?
지금 천국과 연결되어야만 내가 진정으로 평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그리고 침노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외면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외면해야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외면해도 세상일은 괜찮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문제는 내게 하늘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생활화하려면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 내게 주어지는 지금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의 해결이나 그 일의 성취나 그 일의 형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어지는 것보다, 지금 십자가를 쥐고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얻게 되는 것이 항상 더 좋고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고 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 십자가를 붙잡게 만듭니다.
이것을 안 믿으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지 않는 것이고 순간마다 붙잡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것 하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이삭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주시더라도 거기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겉돕니다.
세상적인 축복들이 내 마음에서 겉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 이 세상적인 축복들을 조금만 줘도 마음으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 하듯이 빨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에서는 선민인 한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인 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차라리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번 부자 장로님과 그 권사님도 사치를 뒤룩뒤룩 달고서 살아가고 있다면 선민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상태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주시는 겁니다.
선민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으시고, 마음이 준비되었어도 필요 없으면 안 주시고, 마음이 준비 된 자 중에서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이삭의 기도 내용은 부자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가 될지라도 맘몬에 먹히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당신의 복된 계획들을 이루셔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리브가와 야곱도 오해하고 에서도 오해했습니다. 빼앗겼지만 사실은 빼앗긴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오해해서 빼앗아갔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생애를 보면 특별히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야곱이 에서보다 나았습니까?
에서도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자손이 번성합니다.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130세나 살고도 모든 재산을 흉년 때문에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애굽의 요셉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에 분노에 치를 떠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야곱을 다시 못 봅니다. 이삭은 자기가 곧 죽을 줄 알고 축복을 주려고 한 것인데 죽지도 않고 38년을 더 삽니다. 38년을 더 살게 되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 리브가는 여생을 아들을 못 본채로 죽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고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어머니를 뵙지도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세상 축복을 쫓은 결과예요.
이래도 세상 축복을 쫓아가고 마음으로 바라겠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붙잡고 좋은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